

7. 주거와 교통

7-1 현 주거지 거주기간

7-2 현 거주지 거주인 주된 이유

7-3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도

7-4 현재 주거형태 및 희망하는 주거형태

7-5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 및 희망하는 방의 개수

7-6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및 희망하는 주택 규모

7-7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7-8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7-9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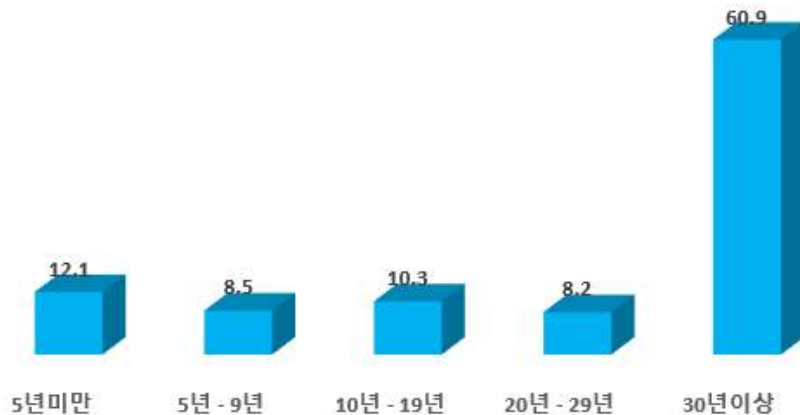
7-10 귀농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

7 - 1 현 주거지 거주기간

현 거주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 60.9%

- 현 주거지 거주기간은 「30년 이상」 60.9%, 「5년 미만」 12.1%, 「10-19년」 10.3%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 「30년 이상」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30년 이상」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22.5%, 배우자 있음 57.3%, 사별/이혼 79.1%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 「5년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서비스/판매, 기능/노무의 경우, 농림 어업은 「30년 이상」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현 주거지 거주기간



<표 7-1> 현 주거지 거주기간

(단위: %)

구 분	계	5년미만	5년 - 9년	10년 - 19년	20년 - 29년	30년이상
2 0 1 8 년	100.0	12.1	8.5	10.3	8.2	60.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2.5	12.7	8.3	6.5	59.9
북 부 권	100.0	10.1	6.1	9.9	8.5	65.4
서 남 부 권	100.0	13.0	6.0	12.5	9.5	58.9
< 성 별 >						
남 자	100.0	13.2	8.7	12.2	8.4	57.5
여 자	100.0	9.0	8.0	4.6	7.4	71.0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2 현 거주지 거주 이유

현 거주 이유의 주된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 62.0%

- 현 주거지의 거주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 62.0%, 「직장 및 일자리」 19.0%, 「주택문제」 7.3%, 「가족과 가까이 살아서」 5.3%의 순으로 나타남
- 「예전부터 살아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이 중부권, 서남부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15~29세는 현 거주지 거주 이유로 「직장 및 일자리」라고 54.0%가 응답함
- 가구 소득별 수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거주 이유로 「예전부터 살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7-2> 현 거주지 거주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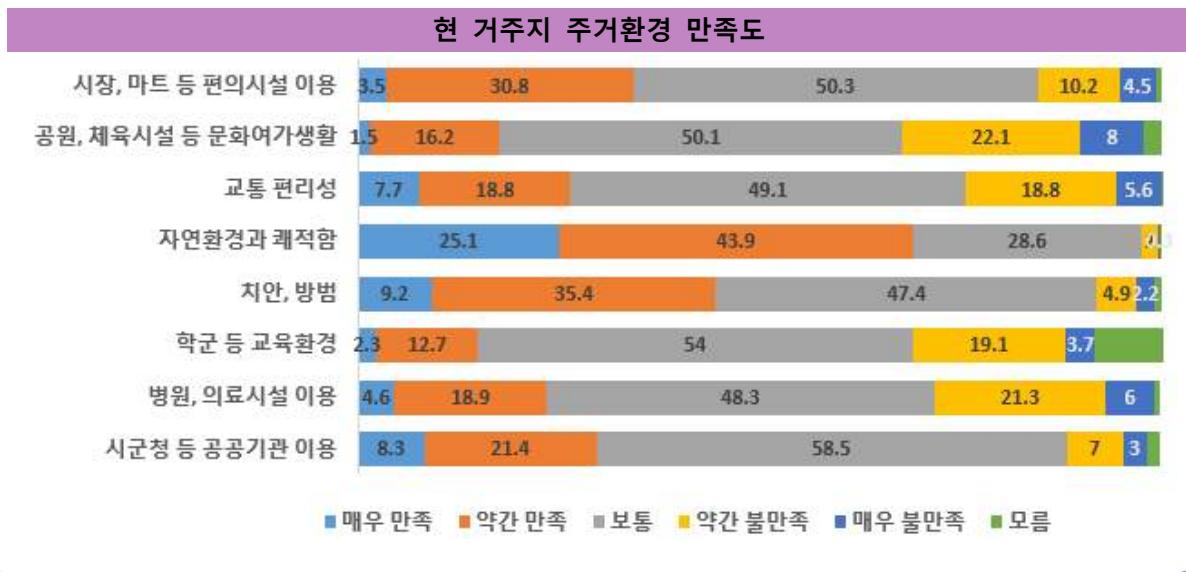
구분	계	주택문제(가격 등)	교육환경(자녀 및 본인)	직장 및 일자리	공기, 녹지 등 자연환경	문화, 생활 편의시설	가족과 가까이 살고자	예전부터 살아서	기타
2018년	100.0	7.3	1.9	19.0	3.7	0.3	5.3	62.0	0.6
<지역별>									
중부권	100.0	10.6	0.7	10.9	6.4	0.5	6.6	63.6	0.8
북부권	100.0	8.3	0.7	17.5	3.8	0.3	1.9	66.6	0.7
서남부권	100.0	3.5	3.7	27.5	1.1	0.0	6.3	57.6	0.3
<성별>									
남자	100.0	6.5	2.5	22.7	3.6	0.1	5.4	58.5	0.6
여자	100.0	9.6	0.0	7.9	4.0	0.7	5.2	72.2	0.4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3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도

자연환경과 쾌적함, 치안, 방법에 만족도 높음

- 현 거주 환경의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자연환경과 쾌적함」 69.0%, 「치안, 방법」 44.6%, 「시장, 마트 등 편의시설의 이용」 34.3%, 「시, 군청 등 공공기관의 이용」 29.7%, 「교통 편리성」 26.5%, 「병원, 의료시설 이용」 23.5%,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생활」 17.7%, 「학군 등 교육환경」 15.0%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매우 만족」을 살펴보면, 북부권은 「시장, 마트 등 편의시설의 이용», 「시, 군청 등 공공기관의 이용», 「병원, 의료시설 이용», 「학군 등 교육환경», 「치안, 방법», 「자연환경과 쾌적함»,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 생활」에서, 중부권은 「교통, 편리성」에서 높게 나타남



<표 7-3> 현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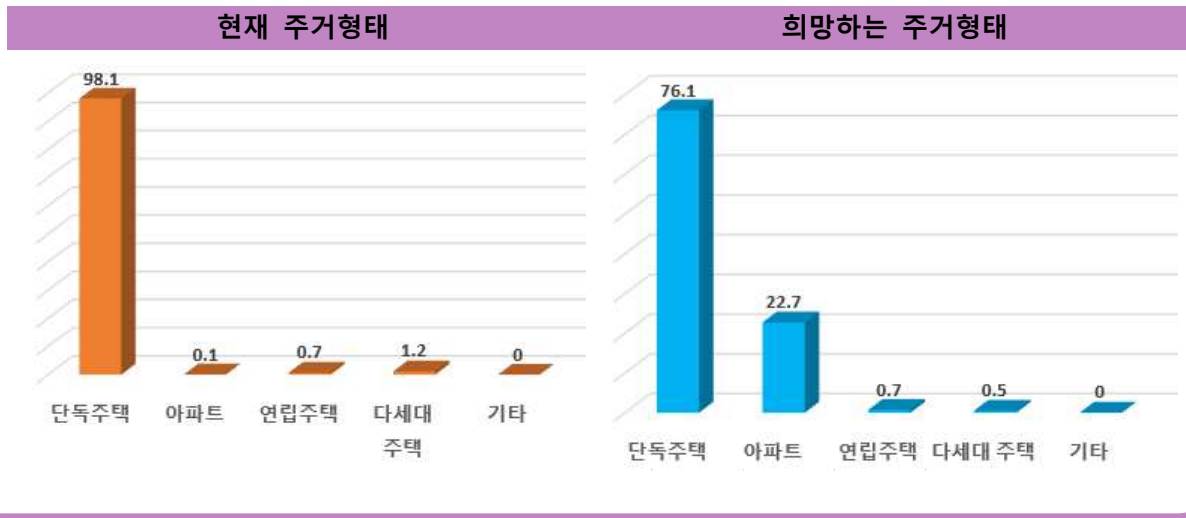
구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시장, 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	100.0	3.5	30.8	50.3	10.2	4.5	0.7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생활	100.0	1.5	16.2	50.1	22.1	8.0	2.1
교통 편리성	100.0	7.7	18.8	49.1	18.8	5.6	0.1
자연환경과 쾌적함	100.0	25.1	43.9	28.6	2.0	0.3	0.2
치안, 방법	100.0	9.2	35.4	47.4	4.9	2.2	0.9
학군 등 교육환경	100.0	2.3	12.7	54.0	19.1	3.7	8.4
병원, 의료시설 이용	100.0	4.6	18.9	48.3	21.3	6.0	0.8
시군청 등 공공기관 이용	100.0	8.3	21.4	58.5	7.0	3.0	1.7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4 현재 주거형태 및 희망하는 주거형태

현재 주거 형태, 희망하는 주거형태 모두 「단독」

- 현재 주거형태는 「단독」 98.1%, 「다세대 주택」 1.2%, 「연립주택」 0.7%, 「아파트」 0.1%의 순임
- 현재 주거형태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혼인별, 경제활동별, 직업별, 가구소득 별 살펴보면 모두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희망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76.1%, 「아파트」 22.7%, 「연립주택」 0.7%, 「다세대 주택」 0.5%의 순임
- 희망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15~29세, 혼인 상태는 미혼, 직업별은 사무직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7-4> 현재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2 0 1 8 년 < 지 역 별 >	100.0	98.1	0.1	0.7	1.2	
중 부 권	100.0	98.8	0.2	1.1	0.0	
북 부 권	100.0	99.8	0.0	0.2	0.0	
서 남 부 권	100.0	96.4	0.0	0.6	3.0	

<표 7-5> 희망하는 주거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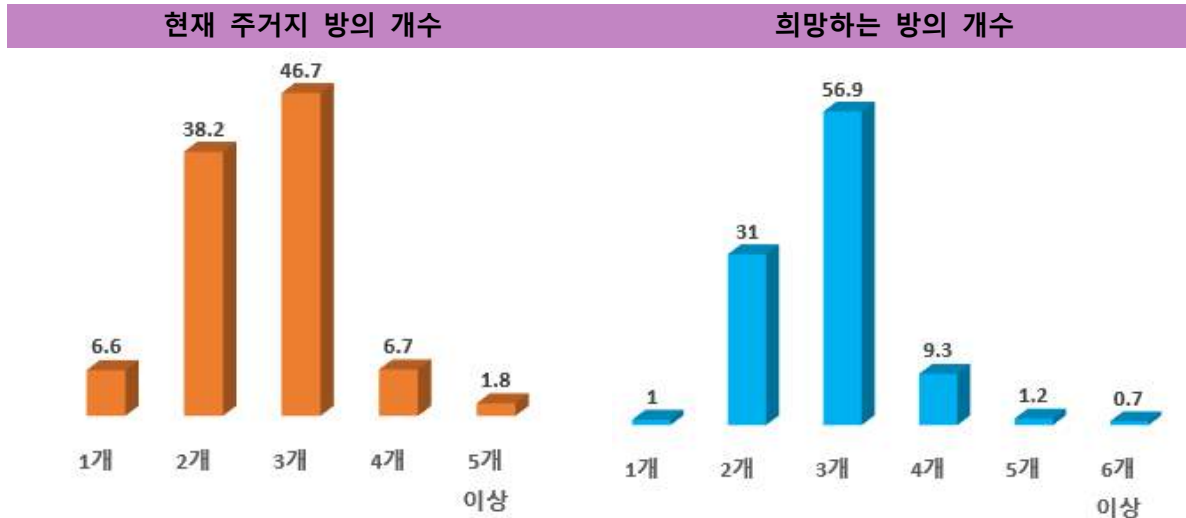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2 0 1 8 년 < 지 역 별 >	100.0	76.1	22.7	0.7	0.5	
중 부 권	100.0	80.9	16.8	1.5	0.8	
북 부 권	100.0	80.9	18.2	0.4	0.5	
서 남 부 권	100.0	68.4	31.3	0.2	0.1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5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 및 희망하는 방의 개수

방의 개수는 3개가 적절

-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는 「3개」 46.7%, 「2개」 38.2%, 「4개」 6.7%, 「1개」 6.6%의 순임
-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 「3개」는 30~3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희망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는 「3개」 56.9%, 「2개」 31.0%, 「4개」 9.3%, 「5개」 1.2%의 순임
- 희망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 「3개」는 30~39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7-6> 현재 주거지의 방의 개수

(단위: %)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2018년 <지역별>	100.0	6.6	38.2	46.7	6.7	1.8
중부권	100.0	5.8	39.1	42.9	9.9	2.3
북부권	100.0	4.9	23.5	65.9	5.2	0.4
서남부권	100.0	8.4	46.5	38.4	4.5	2.2

<표 7-7> 희망하는 주거지의 방의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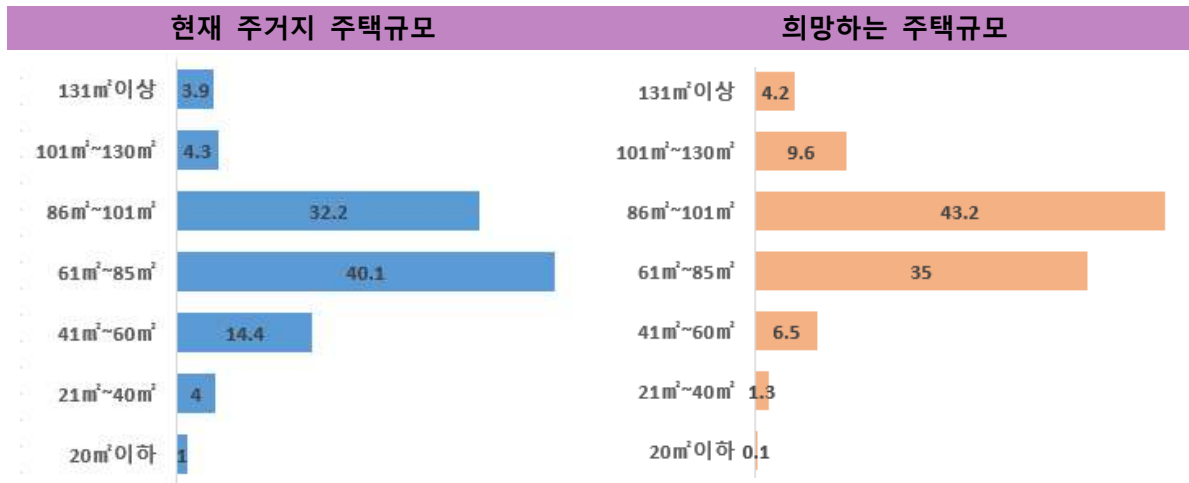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2018년 <지역별>	100.0	1.0	31.0	56.9	9.3	1.2	0.7
중부권	100.0	0.7	35.4	54.5	6.1	1.5	1.7
북부권	100.0	1.2	15.6	67.2	14.2	1.6	0.2
서남부권	100.0	1.1	36.4	52.7	9.2	0.6	0.0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6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및 희망하는 주택규모 적정한 주택규모는 「61㎡~85㎡」

- 현재 주거지의 주택규모는 「61㎡~85㎡」 40.1%, 「86㎡~101㎡」 32.2%, 「41㎡~60㎡」 14.4%, 「101㎡~130㎡」 4.3%, 「131㎡ 이상」 3.9%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주거지 「61㎡~85㎡」는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희망 주거지의 주택규모는 「86㎡~101㎡」 43.2%, 「61㎡~85㎡」 35.0%, 「101㎡~130㎡」 9.6%, 「41㎡~60㎡」 6.5%, 「131㎡ 이상」 4.2%의 순으로 나타남
- 희망 주거지 「86㎡~101㎡」는 15~29세의 연령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7-8>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단위: %)

구 분	계	20㎡이하	21㎡~40㎡	41㎡~60㎡	61㎡~85㎡	86㎡~101㎡	101㎡~130㎡	131㎡이상
2018년 (지역별)	100.0	1.0	4.0	14.4	40.1	32.2	4.3	3.9
중부권	100.0	2.7	2.7	7.9	42.9	37.7	3.1	3.2
북부권	100.0	0.0	0.7	6.8	41.1	36.1	10.0	5.3
서남부권	100.0	0.0	7.5	25.5	36.9	24.5	1.9	3.8

<표 7-9> 희망하는 주거지의 주택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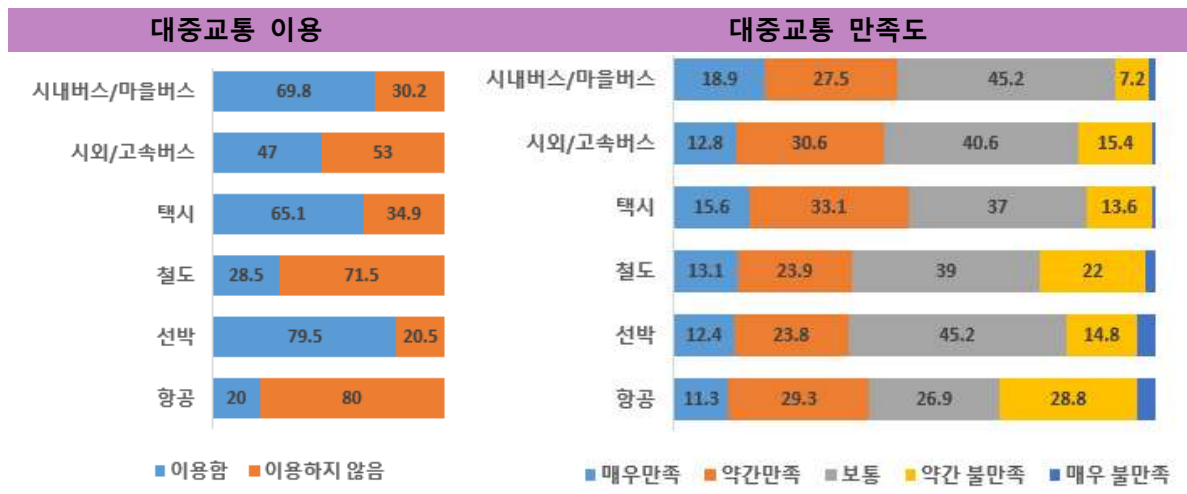
구 분	계	20㎡이하	21㎡~40㎡	41㎡~60㎡	61㎡~85㎡	86㎡~101㎡	101㎡~130㎡	131㎡이상
2018년 (지역별)	100.0	0.1	1.3	6.5	35.0	43.2	9.6	4.2
중부권	100.0	0.0	1.5	4.7	38.8	47.0	4.2	3.9
북부권	100.0	0.2	0.4	2.3	24.1	40.6	24.4	8.1
서남부권	100.0	0.0	1.8	11.0	38.3	41.2	5.6	2.1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7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대중교통은 69.8%가 이용, 만족도는 택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순임

-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선박, 시내버스/마을버스, 택시, 시외/고속버스, 철도, 항공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시내버스/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철도는 65세 이상에서, 항공은 40~49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택시 48.7%, 시내버스/마을버스 46.4%, 시외/고속버스 43.4%, 항공 40.6%, 철도 37.0%의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의 불만족은 항공, 철도, 시외버스/고속버스, 선박, 택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순으로 나타남



<표 7-10>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단위: %)

구분	계	이용함	소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하지 않음
시내버스/마을버스	100.0	69.8	100.0	18.9	27.5	45.2	7.2	1.2	30.2
시외/고속버스	100.0	47.0	100.0	12.8	30.6	40.6	15.4	0.7	53.0
택시	100.0	65.1	100.0	15.6	33.1	37.0	13.6	0.7	34.9
철도	100.0	28.5	100.0	13.1	23.9	39.0	22.0	2.1	71.5
선박	100.0	79.5	100.0	12.4	23.8	45.2	14.8	3.8	20.5
항공	100.0	20.0	100.0	11.3	29.3	26.9	28.8	3.6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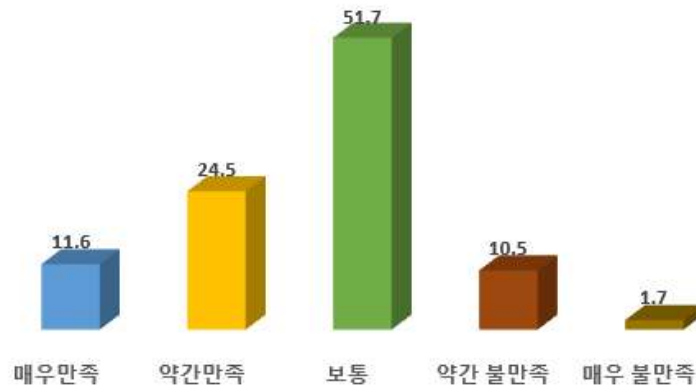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8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보통」

-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보통」 51.7%, 「약간만족」 24.5%, 「매우만족」 11.6%, 「약간 불만족」 10.5%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은 지역은 북부권, 여자, 연령은 65세 이상, 혼인상태는 사별/이혼, 경제활동은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 직업은 농림어업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15~29세의 연령대가 높게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표 7-11>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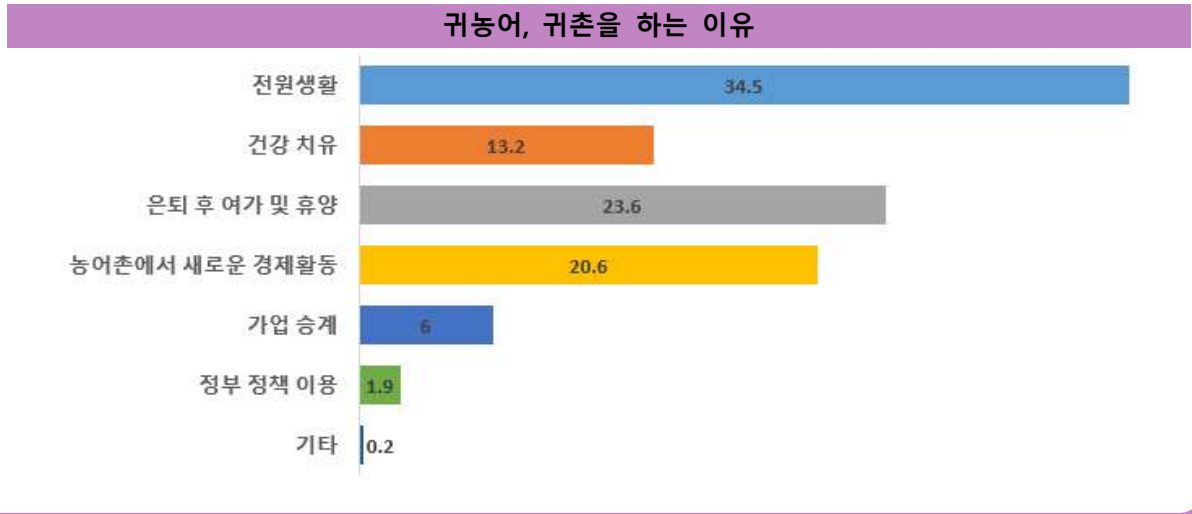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8년	100.0	11.6	24.5	51.7	10.5	1.7
<지역별>						
중부권	100.0	17.3	26.2	39.5	15.5	1.6
북부권	100.0	18.2	34.6	40.6	4.0	2.6
서남부권	100.0	1.9	16.6	70.5	9.8	1.2
<성별>						
남자	100.0	12.5	22.7	52.9	10.2	1.7
여자	100.0	10.6	26.6	50.4	10.8	1.6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9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전원생활

- 귀농어, 귀촌을 하는 이유는 「전원생활」 34.5%,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23.6%, 「농어촌에서의 새로운 경제활동」 20.6%, 「건강 치유」 13.2%의 순으로 나타남
-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어, 귀촌을 하는 이유를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300~400만원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전원생활」을 위해, 15세~29세는 「농어촌에서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귀농어, 귀촌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7-12>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 분	계	전원생활	건강 치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가업 승계	정부 정책 이용	기타
2018년	100.0	34.5	13.2	23.6	20.6	6.0	1.9	0.2
<지역별>								
중부권	100.0	40.6	15.2	18.7	19.2	4.7	1.5	0.1
북부권	100.0	29.8	10.0	22.5	26.8	8.4	2.5	0.0
서남부권	100.0	31.7	13.3	29.0	18.1	5.8	1.8	0.3
<성별>								
남자	100.0	33.5	12.0	22.5	21.4	7.9	2.6	0.1
여자	100.0	35.7	14.6	24.8	19.8	3.9	1.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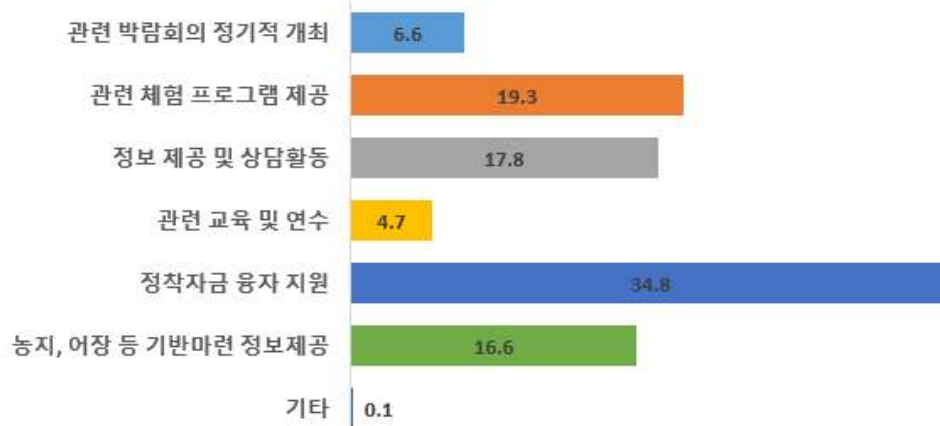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

7 - 10 귀농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착자금 용자지원

- 귀농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착자금 및 용자지원」 34.8%, 「관련 체험프로그램 제공」 19.3%,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17.8%, 「농지, 어장 등 기반마련 정보제공」 16.6%의 순으로 나타남
- 「정착자금 용자지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부권 39.3%, 북부권 33.1%, 중부권 31.3%의 순으로 나타남
- 「정착자금 및 용자지원」은 40~49세의 연령대가 47.4%의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귀농어, 귀촌에 필요한 지원



<표 7-13> 귀농어, 귀촌에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구분	계	관련 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관련 체험 프로그램 제공	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관련 교육 및 연수	정착자금 용자 지원	농지, 어장 등 기반마련 정보제공	기타
2018년 (지역별)	100.0	6.6	19.3	17.8	4.7	34.8	16.6	0.1
중부권	100.0	9.1	19.5	14.7	4.4	31.3	21.0	0.0
북부권	100.0	10.6	25.1	19.2	6.8	33.1	5.2	0.0
서남부권	100.0	1.6	15.5	19.9	3.8	39.3	19.7	0.2
(성별)								
남자	100.0	7.0	17.1	16.7	4.9	38.5	15.9	0.0
여자	100.0	6.1	21.9	19.0	4.6	30.7	17.5	0.2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